



죽비와 목탁

이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투병 진미한씨는 지금?

본지 738호(7월 1일자)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미얀마인 진미한(49세) 기사가 게재됐다. 진씨는 한국인 아내 강미금(42세)과 남방불교를 체험하고자 미얀마를 찾은 한국 수행자들을 도우며 생활해 오다 잠시 한국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없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진미한·강미금 부부와 직접 통화해 보도 뒷 소식을 살폈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씨는 예전 인터뷰 때 보다 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진미한씨는 현재 빠른 속도로 쾌유 중이다. 여러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병세가 호전돼 무균실 생활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미얀마에 있는 동생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동생과 진씨의 골수가 일치해 9월 중순경에 이식수술 일정도 잡혔다. 또 지인들의 도움으로 뒤늦은 혼인신고를 통해 의료비라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반액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액인 치료비는 불자들이 힘을 보탤다. 강미금씨는 "미한씨 소식이 나간 뒤로 수십 통의 격려전화를 받았다. 먼 길을 마다않고 지방에서까지

직접 방문하는 분들까지 있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했다. 언젠가 좋은 일로 보답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미한씨는 그래도 교계에서는 다행스러운 경우다.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고통이 우리 전부의 문제라는 점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말은 진언 같이 입속을 맴돌 구절이지만 많은 선지식들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냥 도울 수 없다면 제도화 시키자. 조계종이 진행하는 자비나눔운동이 좋은 예다. 아람나눔운동은 자비의 등달기, 연꽃 배지달기 등의 나눔 행사상품판매를 통해 직접 지갑을 열어 기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때 간접기부운동을 조성했다. 아니면 적십자 등이 크리스마스실을 통해 결핵퇴치에 앞장섰듯이 교계에서도 쉼 같은 것을 발행해보자.

물론 편지가 아닌 핸드폰 등 휴대기기에 적용시킬 실용적인 대안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진미한씨의 빠른 쾌유를 염원하며 교계 곳곳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웃들의 열풍이 불기를 기대한다.

# 종교편향은 아직도 진행중

## 8·27범불교도대회 1주년 세미나... 종교편향 막는 방과제 역할 '특독'

정부의 종교편향과 사회 곳곳의 종교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2008년 대한민국 전역을 돌린 불자들의 함성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8·27범불교도대회' 1주년을 맞은 8월 27일, 범불교대책위가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는 출가와 재가, 종교를 떠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삶을 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반시민에게 불교계 집단행동이 오히려 갈등 유발로 비춰지는 것 고려해야 한다."(서화동 한국경제신문 종교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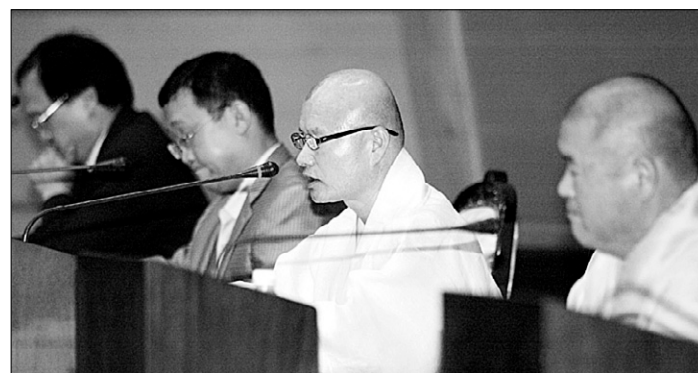
"스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간혹 사보다 쳐진 17위로 조사됐듯, 불교 내부요인이 적지 않았다."(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타종교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쉬운 불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현재 개신교 영향력은 사상누각이 아니라 역사적 이슈에 대응한 노력의 산물로 한국불교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

"불교교리의 올바른 이론 작업도 병행돼 교리적 뒷받침을 통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박경준 동국대 교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처럼 많은 질타와 대책이 쏟아진 것은 종교편향 문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 범불교도대회 이후 외해위원을 꾸렸던 범불교대책위 등 불교



오른쪽부터 현각 스님, 진화 스님, 서화동 기자, 홍사성 사회자. 사진=박재완 기자

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을 뺀 공무원법 개정, 실효성 없는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징계 권고 등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타종교인의 배타적 행위와 함께 그 근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7월 28일 신입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조직재정비 등을 밝힌 승원 스님은 이날 1부 행사에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불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동안 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전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 '종교차별 바로알기' 책자 발간, 지역대책위원회 조직, 종교평화모니터링 활동 등에 방황동에 주력하겠다"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4년 동안 가장 신경 쓴 일이 범불교도대회였다. 범불교도대회는 종교편향을 막는 방과제 역할을 해

은 진화 스님은 "MB정부에 들어서 공직자 종교편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범불교도대회를 촉발시켰다"며 "불교계는 개개의 대응을 넘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종교인권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스님은 "MB정권의 종교편향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취임초기 '고소영' 내각으로 공직자 종교편향의 불교를 트 그 분은 최근 해김대중 전 대통령 봉헌안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제2발제를 통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동해야 사랑받는 불교가 될 것"이라며 "종교편향문제에 당당하고 지속적인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3발제에서 조성택 교수는 "선적인 깨달음을 세간유리를 초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서 한국 불교의 '소극성' 나왔다"고 주장하며 "사회부조리를 따끔히 비판하고 재발치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불자의 의무로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각 발제에는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서화동 한국경제신문 종교전문기자,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

### 승려법계품수식 천태종 가사수여식 함께

천태종은 8월 2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비구·비구니 승급자격을 증명하는 '제7회 승려법계와 가사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번 승려법계품수식에서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받은 스님은 제7회 승려법계고시에 합격한 비구 60명, 비구니 113명 등 총 173명이다. 이 외에 지난 가사수여식에서 가사를 받지 못한 82명의 비구니스님들에게도 가사가 수여됐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제97회 천태불자 기축년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이날 결제에 들어간 1100여 불자들은 비탈등산 각 사찰에서 관음정근 등 수행행진에 들어갔다. 해제식은 9월 25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 성보보존위원 위촉 조계종 전문가 66명

성보문화재 보존·관리에 앞장서는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8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성보보존위원회 위촉식에서 신입 성보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책 분과(김동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등 11명) △동산 분과(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 21명) △고고·건축 분과(장병삼 숙명여대 교수 등 7명) △박물관·보존 분과(홍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 등 6명) △무형 분과(오출세 동국대 교수 등 9명) △문화예술 분과(조계종 영산어장 동주 스님 등 12명)별 전문가 6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성보문화재의 보존과 창달을 위해 각 계 전문가가 위원의 도움을 절실하다"며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 깊은 조언으로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존·활용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종섭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제는?

#### 9월 14~15일 제2회 대중결사 워크숍 개최

정당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 의의, 이와 대중결사가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중결사는 9월 14~15일 공주 태화사 전통불교문화연구소에서 '제2회 정당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지난 6~7월 사부대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무원장 자질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사부대중이 생각하는 총무원장의 자격과 자질, 차기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설문분석발표에 이어 안익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이 '기자가 바라본 종단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제와 '대중결사 사업의 구체화와 회원 결속 방안 모색' 좌담회도 열릴 계획이다. (02)732-1209 노덕현 기자




종단협,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템플스테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8월 25~28일 인제 백담사에서 해외파견 예정인 국제포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3박 4일간 발우공양과 서예, 전통무용을 체험했다.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 '현대불교'를 이룩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회향,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 천일,  
아름다운 수행공동체를 이루겠다는  
20만 봉은불자의 발원이 하나가 되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회향하지만  
더 큰 꿈을 위해  
우리의 정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